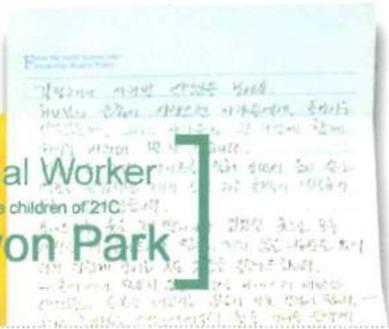


# 나눔가계부



땅끝에서 부는 따뜻한 바람

Social Worker  
For the children of 21C  
Jawon Park



갈릴래아 아가방 선생님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스런 아가들에게, 돌보시는 선생님들께,  
그리고 아가들의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몇 자 적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사이트를 통해 보면서 돕고 싶은 열정은 앞섰지만  
제가 갖고 있는 현실이 넉넉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보내드리는 옷은 제 딸아이가 입었던 옷으로 모두 세탁을 해 보내드리나  
얼룩이 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 더러 더럽게 보이는 옷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여 제가 필요치 않은 물건을 보내드려  
바쁘신 선생님들의 손길을 빼앗지는 않는지 자못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초유밀은 신생아에서부터 첫 돌 아이들 분유에 리서 먹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갈릴래아 아가방에 이웃의 사랑과 정으로 따뜻함이 충만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박자원 드림



\* 갈릴래아 아가방은 천주교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 사목센터 갈릴래아에서 이주노동자 가정의 영아들을 위해 마련한 특이시설입니다. 박자원 선생님이 보내 주신 따뜻한 마음을 갈릴래아 아가방에 잘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나눔가계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은  
“한 번의 큰 비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추구합니다



“ 나눔 가계부는 목차가 없습니다 ”

| 발행한 곳 아름다운재단 | 발행일 2003년 12월 12일 | 발행인 박상중 | 편집인 박원순 | 주소 110-140 서울  
종로구 기회동 16-3 | 전화 02-766-1004 | 웹사이트 [www.beautifulfund.org](http://www.beautifulfund.org) |

# 大韓기부자 만세! 나눔 民國 만세!



만세의 합창이 필요할 때입니다  
답답하고 억눌린 가슴을 풀어 줄  
소리가 필요 할 때입니다.  
1% 나눔이 전국 방방곡곡 이어져  
희망의 함성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기부자 여러분들은  
우리사회의 등불입니다.  
1% 나눔운동의 전도사가 되어주십시오.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2004년 새해에는 다 함께 만세를 불러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름다운 재단 드림〉

## 아름다운재단 배분현장

하나,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 ①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②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을 통해 빈곤과 소외,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갑니다.
- ③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헌신하며 활동하는 풀뿌리 공익단체와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둘, 아름다운재단은 자선적인 시혜가 아닌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하는 지원을 중시합니다.

셋, 아름다운재단은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그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지원대상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넷,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와 일반시민, 사회 각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열린 배분을 지향합니다.

다섯,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② 특정 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③ 모금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④ 재단법인이나 모금단체의 기금

여섯,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원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 ②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 ③ 지원사업 공고시 제시된 기준에 따른 위법성이 드러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 ④ 기타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일곱,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사업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덟,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사업은 기부자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세부내용과 진행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각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을 중시합니다.

아홉, 아름다운재단은 배분사업의 시작과 경과, 결과 등의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부자와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보고합니다.

열,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사업은 특정분야, 특정지역,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 나눔가계부

지난 3년간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나눔 참여로 아름다운재단은 크게 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커진 것 못지않게, 이제부터는 소중히 모인 돈과 마음들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과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단체들을 찾아서,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가계부'에는 지난 3년간 아름다운재단이 지원사업을 펼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인 돈의 시기와 지원시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원규모는 매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에 모인 돈들은 항구적으로 지원되는 기금과 사업의 성격과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쓰이는 시기와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난 3년간 1%의 기부자들이 아름다운재단에 쓰임새를 일임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통해 첫 번째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의 지원사업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구제가 아닌, 일시적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살맛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 땅의 정의를 세우면서 바뀌어지는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나눔가계부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절약가계부의 잔잔한 삶의 자취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쓰였나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쓰임새를 되짚어 보는 "아름답게 돈 쓰는 가계부"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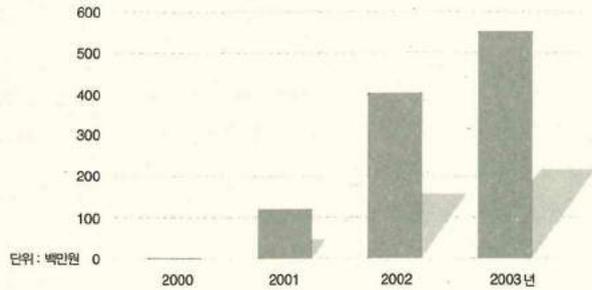
갈 길은 멀고, 아직도 많은 참여가 필요할 때이지만 더디지만 올곧게 걸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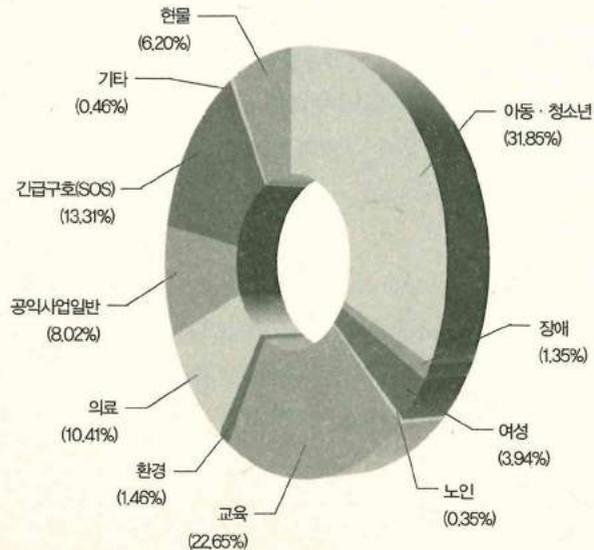
■ 지원사업 총 금액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	120,413,530원	405,810,452원	566,393,964원	1,092,617,946

(2000년 8월~2003년 10월 단위/원)



■ 영역별 배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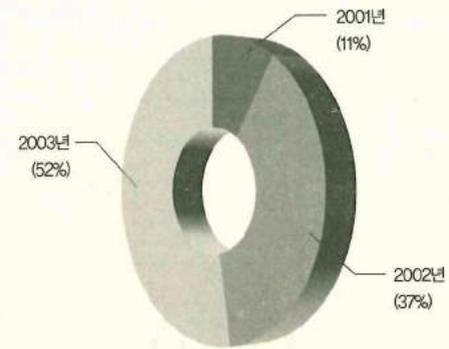


■ 지원영역별 지원사업 총 금액

구분	2000	2001	2002	2003	총계	비율
아동·청소년	-	28,500,000	119,002,813	200,514,911	348,017,724	31.85%
장애	-	-	13,496,000	1,200,000	14,696,000	1.35%
여성	-	-	39,000,000	4,000,000	43,000,000	3.94%
노인	-	-	-	3,825,000	3,825,000	0.35%
교육	-	54,453,530	-	193,063,227	247,516,757	22.65%
환경	-	7,000,000	6,000,000	3,000,000	16,000,000	1.46%
의료	-	-	113,821,767	-	113,821,767	10.41%
공익사업일반	-	-	53,404,792	34,208,828	87,613,620	8.02%
간급구호(SOS)	-	-	24,705,080	120,681,998	145,387,078	13.31%
기타	-	-	2,500,000	2,500,000	5,000,000	0.46%
한물	-	30,460,000	33,880,000	3,400,000	67,740,000	6.20%
총계	-	120,413,530	405,810,452	566,393,964	1,092,617,946	100%

(2000년 8월~2003년 10월 단위/원)

■ 연도별 배분비율



■ 기금 및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별 지원사업 총 금액

영역	구분 기금명	연도별 지원사업비					비율
		2000	2001	2002	2003	총계	
아·예·연·소·선·업·비	길위의희망찾기	-	28,500,000	-	32,734,950	61,234,950	31.85%
	오필승코리아	-	-	3,616,800	-	3,616,800	
	희망특공대	-	-	55,886,133	66,966,411	122,852,544	
	소원우체통	-	-	58,189,880	56,309,400	114,499,280	
	휴머스	-	-	1,310,000	765,000	2,075,000	
	푸른세상을여는기금	-	-	-	12,753,280	12,753,280	
	Big지기 기금	-	-	-	27,211,610	27,211,610	
	신세계 문화나눔	-	-	-	3,774,260	3,774,260	
	소계	-	28,500,000	119,002,813	200,514,911	348,017,724	
장애	우리은행 백두대간	-	-	13,496,000	-	13,496,000	1.35%
	이철해어커커	-	-	-	1,200,000	1,200,000	
	소계	-	-	13,496,000	1,200,000	14,696,000	
여성	신기한나라만들기	-	-	39,000,000	4,000,000	43,000,000	3.94%
	소계	-	-	39,000,000	4,000,000	43,000,000	
인도	무의탁독거노인	-	-	-	3,825,000	3,825,000	0.35%
	소계	-	-	-	3,825,000	3,825,000	
취·포	김군자할머니	-	7,860,300	-	21,034,500	28,894,800	22.65%
	도움넷	-	31,593,230	-	-	31,593,230	
	공부해서남주자	-	15,000,000	-	-	15,000,000	
	희망장학금	-	-	-	159,928,727	159,928,727	
	현대모비스	-	-	-	12,100,000	12,100,000	
	소계	-	54,453,530	-	193,063,277	247,516,757	

영역	구분 기금명	연도별 지원사업비					비율
		2000	2001	2002	2003	총계	
이·재·원	우리은행 백두대간	-	-	6,000,000	3,000,000	9,000,000	1.46%
	한국의대니사만들기	-	7,000,000	-	-	7,000,000	
	소계	-	7,000,000	6,000,000	3,000,000	16,000,000	
의·비	박고테	-	-	113,821,767	-	113,821,767	10.41%
	소계	-	-	113,821,767	-	113,821,767	
재·의·자·원·개·발·단	내일을위한기금	-	-	9,523,910	14,087,370	23,611,280	8.02%
	최달석목사님을추모하는기금	-	-	34,612,489	-	34,612,489	
	아시아센터기금	-	-	9,268,393	20,121,458	29,389,851	
	소계	-	-	53,404,792	34,208,828	87,613,620	
기·타	거울나기	-	-	24,705,080	2,647,937	27,353,017	13.31%
	춧불기금	-	-	-	1,450,499	1,450,499	
	떡국나누기	-	-	-	2,818,221	2,818,221	
	슬픔그마음함께	-	-	-	42,000,000	42,000,000	
	빛한줄기물한방울	-	-	-	71,765,341	71,765,341	
	소계	-	-	24,705,080	120,681,998	145,387,078	
기타	울산병환우회	-	-	2,500,000	2,500,000	5,000,000	0.46%
	소계	-	-	2,500,000	2,500,000	5,000,000	
현물지원		-	30,460,000	33,880,000	3,400,000	67,740,000	6.20%
총 계		-	120,413,530	405,810,452	566,393,964	1,092,617,946	100%

(2000년 8월~2003년 10월현재 / 단위원)

## 당신의 이름으로 희망을 지원했습니다

1 아동·청소년 지원영역

### ■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넓은세상, 자연이가르쳐주는큰가르침

가족의 부재나 해체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혹은 빈곤한 가계로 인해 복지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우리사회는 이들의 생계를 걱정하고 의식주를 위한 물질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미래세대인 이들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무심한 듯이 보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여행은커녕 외출을 위한 여유마저 없는 이 아이들의 생활, 이들은 삶의 여유로움보다 삶의 팍팍함과 각박함을 먼저 배울지도 모릅니다.

바다처럼 드넓게, 산처럼 당당하게, 들녘처럼 푸르게, 아름다운재단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은 넓은 세상으로의 꿈을 키워가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 아이들이 때로는 비를 맞으며, 때로는 땀별 아래를 걸으며, 이 땅 구석구석을 순례하면서 오랜 상처가 건히고, 열등감을 대신하는 해맑은 웃음과 희망 하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 꿈과 낭만, 도전과 모험, 용기와 책임, 우정과 협동을 키워가는 것이 아름다운재단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의 바램입니다. 넓은 세상, 자연이 가르쳐주는 커다란 가르침은 바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 **지원시기** : 2001년 7월, 2003년 8월
- **지원단체** : 2001년 들꽃피는 마을 등 6개 단체, 2003년 해님뜨래공부방 등 8개 단체
- **지원내용** : 소외아동들의 여행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액** : 2001년 28,500,000원, 2003년 32,734,950원

### ● 2001년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지원내용

기관명	지역	기관유형	선정 point	지원금	지원내용
성민여사	광주	보육시설	• 축적된 사업의 성과 및 참여 • 아동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기획	500만원	시설내 소집단 단위 가족여행 프로그램
대동복지관	대전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 기존 캠프양식에 대한 반성과 대안모색 • 여행을 통해 움직이는 대안학교 모형개발	600만원	모험배낭여행 캠프
들꽃피는 마을	경기 안산	그룹홈	• 자생적 그룹홈 및 대안학교의 통합적 운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 오지탐험을 위한 장비지원	400만원	강원도 산악오지 자연탐험
한국 Save the Children	서울	사회복지법인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대상자의 통합여행 및 전국 단위 사업	550만원	도시, 농촌/장애, 비장애 아동통합문화기행
청학농어원	부산	보육시설	• 수혜대상자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 •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효과적 예산편성 및 자부담 비용에 대한 후원개발 열의	400만원	제주도 자전거 하이킹
펼쳐 인터내셔널	서울	사회복지법인	• 수혜대상자의 특수성 및 지원의 필요성 • 기존 혼혈아동의 공동체역시 및 자아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여행 프로그램	400만원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적지 및 역사 탐방

※ 2001년 길위의 희망찾기 지원사업은 롯데리아에서 기탁한 “좋은세상만들기 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 2003년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지원내용

기관명	지역	기관유형	선정 point	지원금	지원내용
들꽃피는 마을	인산	그룹홈	• 축적된 사업의 성과 및 사업의 지속성 • 들꽃피는 마을 사업에서 여행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5,000,000원	국토순례 도보여행
월성종합 사회복지관	대구	지역 사회복지관	• 프로그램의 특성 •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대상자들의 노력과 참여	5,000,000원	캄보디아 지원봉사활동
신광모자원	군산	생활시설	•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의 욕구 • 재정 지원의 필요성	3,902,000원	스키캠프와 산행을 통한 극기훈련
상산종합사회 복지관	인천	지역 사회복지관	• 탈북청소년의 사회, 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5,000,000원	탈북청소년의 제주도체험캠프
해림원	부천	장애인 생활시설	• 연계사업 속에서의 프로그램의 중요성	3,821,250원	장애아동과 유택가정과의 가족여행
해님뜨래 공부방	춘천	공부방	• 재정지원의 필요성 • 자원봉사 교사들의 사업추진 열의	3,211,700원	서울 문화체험 캠프
해송어린이 동자공동체	서울	공부방	• 재정지원의 필요성 • 사업 준비과정에서의 대상자들의 참여	1,800,000원	강진 해남 역사기행
새날을 여는 청소년센터	성남	그룹홈	• 기존사업과의 연계성 고려 •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이 갖는 의의	5,000,000원	그룹홈 청소년과 가족의 제주도 여행

※ 2003년 길위의 희망찾기 지원사업은 미래회의 아름다운 1% 나눔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 휴머스 기금 만물이 소생하는 것의 시작, 나눔

패션 브랜드 “쿠기”, “키라라”로 잘 알려진 중견패션기업 (주)휴머스의 임직원들은 2002년 5월부터 매달 급여의 1%를 기부해 “휴머스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땅, 시작”을 의미한다는 휴머스(HUMUS), 휴머스의 어원은 인간을 뜻하는 ‘HUMAN’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휴머스라는 회사의 이름에 걸맞게 임직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눔으로 시작했습니다. 휴머스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아픔을 겪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휴머스 기금은 3세~18세 미만의 무의탁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의 아동보육시설 애민원, 부모의 보살핌도 없이 화상으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전남 목포의 김소리양, 강원도 속초의 소녀가장 은정 세자매를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스 임직원들이 이 지원대상단체와 대상자들을 직접 선정하여 2002년 5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 2,075,000원을 “애민원”과 김소리양에게 전달하였으며, 은정 세자매의 자립준비금으로 위해 매달 15만원씩, 총 270만원을 저축해 놓고 있습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5월~2003년 10월 현재
- **지원대상** : 애민원, 김소리, 이은정 자매
- **지원내용** : 아동보육시설 후원, 조모가정 화상환아 결연후원, 소년소녀가장 자립준비금 적립
- **지원금액** : 애민원 및 김소리 지원금액 2,075,000원, 이은정 자매 적립금액 27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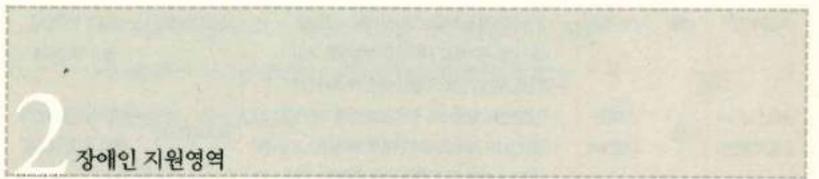
## ■ 오피승 코리아 기금 꿈★은 이루어진다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였던 2002년 6월의 월드컵, 우리는 모두 하나된 음성으로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두번째 선수가 되어 “오피승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전국 거리거리마다 보여주었던 대한민국의 힘이 이제는 나눔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중 “오피승 코리아” 응원곡으로 대한민국의 붉은 물결을 이끌었던 윤도현 밴드는 그 감동을 고스란히 나눔으로 되살려 “오피승 코리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축구선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유소년들과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선수를 지원하는 이 기금은 나눔의 힘으로 또 하나의 꿈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윤도현밴드의 기부금 800만원으로 조성된 이 기금에 탤런트 최수종님과 KBS는 “최수종의 골든볼” 프로그램에서 모여진 기부금 91,510,000원을 더했으며, 아름다운재단은 그 첫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횡성읍 읍하리 횡성초등학교에 축구시설을 조성하고, 축구용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 초등학교 축구부에는 방한복 30벌을 지원했습니다. “오피승 코리아기금”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축구를 매개로 꿈을 키워가는 어린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11월
- **지원단체** : 강원도 횡성 초등학교, 강원도 태백 황지 초등학교
- **지원내용** : 축구시설 조성 및 축구화, 축구공, 방한운동복 등 축구용품 지원
- **지원금액** : 3,616,800원



## ■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 더불어나눔으로, 함께 걸음으로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은 우리은행 임직원의 단합과 금융권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 이루어진 백두대장정 행사의 모금액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백두대장정을 실시하며 이 행사가 단지 은행내의 행사로 머물지 않고 “우리 산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단체들과 어두운 그늘에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장애인과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금을 조성,

장애인복지사업과 백두대간 환경보전 활동가 및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3개 단체에 총 13,49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상근 활동가의 월급여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중심의 새로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8월
- **지원단체** : 동천의집, 마들주민회,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저소득실업장애인, 장애아동,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 **지원금액** : 총 13,496,000원

● 백두대간 기금 장애인복지사업 지원내용

단체명	지역	단체유형	선정 Point	지원금액	지원내용
동천의 집	서울	장애인 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으로 퇴소한 무연고 여성장애인의 적응과 가정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li> <li>• 지역사회 결연 및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전개</li> <li>• 퇴소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개별 사례관리</li> </ul>	4,6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으로 퇴소한 무연고 여성 장신지체장애인</li> <li>• 친정 만들기</li> </ul>
마들주민회	서울	지역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내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사회적응훈련 및 장애심화 방지를 위한 정서적 프로그램</li> <li>• 지역 공동체단체로 지역운동의 활성화 기대</li> </ul>	4,79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생활훈련</li> <li>• 놀이 미술치료</li> </ul>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서울	장애인 자활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장애인의 신체적 활동 촉진과 여가선용</li> <li>•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취업과의 연계</li> <li>• 작품전시회 개최로 장애인에게 성취감과 보람제시</li> <li>• 장애인 노동권 및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성격</li> </ul>	4,0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실업장애인의 여가 및 창업교육</li> </ul>

■ 이철헤어커커기금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 있어요”

이철헤어커커에서는 2002년 전국의 25개 이철헤어커커 매장이 동시에 수익의 1%를 나누는 나눔의 가게로 가입하면서, 아름다운재단에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이철헤어커커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왔으며 헤어사 진전 행사의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헤어커커기금”은 점자도서 제작의 어

려움으로 인해 책을 읽을 기회가 부족한 시각장애아동을 위해 귀로 들을 수 있는 동화 CD를 제작, 지원했습니다.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이철헤어커커 직원 7명이 직접 녹음에 참여하여 만든 듣는 CD는 “얼굴 빨개지는 아이”(장 자끄 상빠 지음)와 “너도 하늘말라리아”(이금이 지음) 동화책 두 권으로 시각장애아동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녹음된 CD입니다. 또한 이철헤어커커 임직원은 2003년 3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자원봉사를 실시하면서 “이철헤어커커기금”으로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듣는 동화 CD 3개를 인천혜광학교를 비롯해 전국 점자도서관 등 총 63곳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미용업체의 특성상 자칫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에 대해 이철헤어커커의 이철 원장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상관없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지원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3월
- **지원단체** : 갈보리교회 점자도서관 등 전국 점자도서관 63곳
- **지원내용** :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듣는동화 CD 제작 지원
- **지원금액** : 총 1,200,000원

■ 송진우 기금 아름다운비상, 장애의 벽을 넘어 승리의 주역으로

한차례 가을비가 지나간 2003년 11월13일. 청명한 하늘과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눈부신 충주 성심학교를 송진우 선수, 한화이글스와 아름다운재단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내 최초의 청각장애인 야구단인 성심학교 야구단의 동계훈련을 “송진우기금”으로 지원하고 송진우선수가 직접 선수들의 투구폼을 지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총 12,180,000원의 “송진우기금”은 성심학교 야구단의 2004년 1월 청주 세광고 야

기금별 지원사업  
아름·청소년  
장애인  
오산  
교육  
환경  
의료  
공익사업  
505기금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래  
문화나눔

구단과의 합동훈련과 극기훈련, 2004년 2월의 제주에서의 5박 6일간 전지훈련 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한화이글스는 야구단의 동계훈련을 위해 선수들의 훈련용 점퍼 30벌과 200개의 야구공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 “송진우기금”이 등지를 틀게 된 것은 2002년 4월 송진우 선수가 프로 야구 통산 최다승인 147승의 기록을 세우던 날. 이후 추가 1승마다 송진우선수가 50만 원씩 기부하고, 송진우선수의 기부 취지에 동참하는 한화이글스가 50만원씩 추가로 기부하여 2002년 말 1200만원의 “송진우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희망의 손을 내미는 송진우선수의 아름다운 마음에 아름다운재단 32명 1% 나눔회원들이 동참하여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진우기금”의 성심학교 야구단 동계 훈련 지원은 청각장애인 야구선수들이 비장애 선수들과 함께 같은 꿈을 향해 땀흘리며 힘차게 뛸 수 있는, 졸업 후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청각장애인 선수 커티스 프라이드 같은 프로야구선수로 성장하고 싶다는 선수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11월
- 지원단체 : 성심학교 청각장애인 야구단
- 지원내용 : 성심학교 야구단의 동계전지훈련 등 훈련비용 및 야구용품 지원
- 지원금액 : 총 12,180,000원

● 성심학교 청각장애인 야구단은

2002년 9월9일 “귀의 날”, 충주의 성심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학생 18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청각장애인 야구팀이 창단되었습니다. 선린상고 시절 야구선수로 뛰었던 조일연 교감은 성심학교 야구부를 창립하며 한국 대중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사회의 주류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니다. 야구는 말이 아닌 사인(sign)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듣지 못해도 비장애인과 어깨를 겨뤄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체력이던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기초체력훈련, 야구의 규칙부터 배워야 했던 20명 남짓의 야구단. 보통 야구선수들이 공을 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야 공이 떨어지는 곳에서 수비를 하는 반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성심학교 선수들은 날아가는 공을 보고 달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독의 지도를 다시 수화로 전달받으며 어렵지만 했던 훈련을 거쳤지만 비장애인 고등학교 야구단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크나큰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 한계, 재정적 열악함, 미래에 대한 불확신 등 모두가 쉽게 극복하기엔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지난 2003년 8월 13일 제 33회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성남서고와의 경기는 비록 1:10 7회 콜드게임으로 패하였지만, 1년간의 훈련 결과 전국대회에서 1점을 득점하였음은 성심학교 야구단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3 여성 지원영역

■ 신기한 나라 만들기 기금 네 겹의 그늘속, 여성장애우의 희망찾기

삶의 장애, 출산과 육아. 빈곤과 장애, 여성과 육아라는 네 겹의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성장애인들. 여성장애인들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허나 혼자 살아가는 일조차 버거운 장애여성에게 임신은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이며, 출산 이후 육아는 어떤 지원도 없이 혼자 감당해 내야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임신기간 중 아이가 커지며 내장의 압박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결국 임신중 몸무게가 20Kg으로 떨어졌던 한 장애여성,

그러나 이러한 고통도 참아내는 장애여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도 병원에 들쳐 업고 달려갈 수 없어 아이와 함께 밤새 울었던 애꿎은 밤”이었다고 합니다. 신기한 나라 만들기 기금은 이렇게 네점의 일상적 무게 속에서 고통받는 장애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1월~2003년 1월
- **지원단체**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여성연구소, 서울북부장애인복지관
- **지원내용** : 여성장애우의 임신 · 출산 · 육아지원을 위한 실태 및 육구 조사연구사업 및 무료도우미 파견사업
- **지원금액** : 조사연구사업 23,000,000원, 무료도우미 파견사업 20,000,000원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장애우의 임신 · 출산 · 육아지원을 위한 위한 실태 및 육구조사사업”**

이 조사연구사업은 여성장애우가 경험하는 임신 · 출산 · 육아 등의 실태와 육구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실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계기로 여성장애우의 모성권과 육아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소외계층인 여성장애우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가 여성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 중 여성장애인의 피임율은 52.6%, 산후진찰 경험은 54.2%로 일반여성의 피임율 70.4%, 산후진찰 경험 85.0%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유산율은 49.6%로 높게 나타났고, 임신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육아 부담이 3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산전관리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41.1%, 이동의 어려움 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제도적 정책은 경제적 지원 37.1%, 도우미 제도화 29.9% 순으로 조사되었고, 희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도우미 파견 34.5%, 의료적 지원 23.0% 순이었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여성연구소는 조사연구사업의 결과에 따라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 육아와 관련된 최우선 정책과제로 출산수당과 육아수당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산후 · 육아 · 학습 도우미 등 도우미 파견의 제도화,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입소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우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을 위한 무료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여성의 문제는 그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차별속에서 장애남성이나 비장애여성보다 사회에서 많은 권리를 포기당한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우의 임신과 출산, 양육의 경우는 제도적 지원과 적절한 민간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육체적 · 정신적 손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산모관리사, 가정관리사 등 케어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고, 저소득 장애여성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케어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한 이 사업은 여성장애우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임신과 출산관리, 육아를 지원하는 한 방안으로 여성장애우를 위한 무료도우미 파견 시스템을 개발, 노원구 여성장애인 19가정에 각 6개월씩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문무료도우미 양성 프로그램, 도우미의 임신 및 출산지원, 육아 및 가사 지원 등을 통해 여성장애우의 실질적인 육구에 부응하고 장애여성을 위한 임신 · 출산 · 육아 지원프로그램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시범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신기한나라만들기 기금은 한술교육 기업세전 이익 1% 기부로 조성된 것입니다.



## “더 힘든 친구의 장학금은 뺏고 싶지 않아요”

노가운양(가명) 가운양은 현재 부산의 한 대학 법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아프신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아온 시간이 길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그리 크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항상 소풍이나 운동회 때 친구들 손에 들린 김밥 대신 빵과 우유를 먹으며 상심감을 느끼긴 했습니다. 사춘기를 거치며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으며 상황에 좌절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세로 하교후 신문 배달로 용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까지 매일 40분씩 걸어서 등교를 하며, 남들처럼 학원을 갈 수 없기에 대학 진학의 꿈을 위해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격통지를 전해 준 4년제 대학은 두 곳이었지만, 한 곳은 대학 4년간 좋은 성적을 받으며 교내 근로를 할 경우 근로장학생 자격을 주었기에 진학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학기 동안, 하루 4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강의와 공간시간을 이용한 근로로 장학금을 받으며,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생활비와 용돈을 만들기엔 벅하지만 그래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어려우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졸업전 공무원 시험에 꼭 합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합니다. 하루하루의 피로에 가끔은 주저앉아 울고 싶지만, 노00양은 그래도 쓰러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며 자신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자신보다 더 힘겨운 생활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장학금의 기회를 뺏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지원신청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가운양. 그러나 이번 한 학기는 공간시간의 근로보다는 취업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꼭 공무원이 되어 다른 아픔과 고단한 삶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도우며 함께 삶을 헤쳐 나가고 싶다고 하는 가운양에게 김군자활머니기금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 ■ 도움넷기금 다시 시작되는 희망을 위해

인터넷기부 및 모금컨설팅 사이트 도움넷은 2001년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금 약정된 도움넷 기금 45,880,000원을 기부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도움넷 기금으로 2001년 8월 보육시설 퇴소 대학생 총 20명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20명의 시설퇴소 대학생은 아동복지시설연합회의 추천을 거쳐 선발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사회복지계열 및 이공계를 비롯하여 예체능계열의 학생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폭넓게 지원하였습니다. 도움넷 기금에는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을 포함하여 벤처 기업가, 노영심씨 등 연예인들이 기부에 참여하였고 특히 노영심씨는 음악을 전공하는 있는 학생 2명에 대해 6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지원시기 : 2001년 8월
- 지원대상 : 보육시설 퇴소 대학생 주연희 등 20명
- 지원내용 : 2001년 2학기 등록금 전액
- 지원금액 : 총 31,593,230원

## ■ 메가스터디 공부해서 남주자 기금 그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입시교육 전문사이트인 메가스터디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운 환경으로 배움의 꿈을 접어야 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세전 매출의 1%에 해당하는 38,537,743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 메가스터디 “공부해서 남주자”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2001년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구필화가로 뒤늦게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박정남(지체장애 1급)과 김정고시를 거쳐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최성미님(뇌성마비, 지체장애 1급)등 2명에게 전동휠체어를 구입, 전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약 30여만명.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5년에 한번씩 30만원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고, 더욱이 고가인 가격 때문에 전동휠체어 구입은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 시민 단체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원시기** : 2001년 12월
- **지원대상** : 구족화기로 대입수험생인 박정, 검정고시 준비생 최성미 등 2명
- **지원내용** : 신체장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전동휠체어 지원
- **지원금액** : 15,000,000원

## 5 환경 지원영역

### ■ 한국의 대니서 만들기 기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을 키웁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의 대니서를 키운다." 고등학교 풀지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대니서. 그러나 세계는 그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격찬을 보냈습니다. 열두살 생일날 23달러를 가지고 만든 "지구 2000"이라는 단체는 창단 8년후 회원수 2만 6천여명에 이르는 미국의 가장 큰 청소년 환경 단체로 성장했고 그는 "지구에서 가장 경이로운 22세 청년"이라는 자랑스런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니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열두살 소년의 환경운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지원해주는 사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미래신탁소송, 모피옷 반대운동, 청소년 환경지킴이 등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청소년 환경운동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으나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니서 만들기 기금"은 미래의 환경운동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을 키우기 위한 기금입니다. 아름

다운재단은 이 기금으로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야 할 지구의 환경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청소년 환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 **지원시기** : 2001년 7월
- **지원단체** : 생명회의, 녹색연합 아이지엘
- **지원내용** :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활동 지원
- **지원금액** : 총 7백만원

기관명	지역	기관유형	선정 Point	지원금액	지원내용
녹색연합	서울	환경 시민단체	• 지속적인 청소년 환경운동의 실천 • 청소년의 자발적·주체적 참여실현	400만원	미래세대 환경이야기 프로그램 지원
생명회의	서울	환경 시민단체	• 미래 환경세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300만원	청소년 환경캠프 및 장비구입비 지원

※ 한국의 대니서 만들기 기금 지원사업은 롯데리아에서 기탁한 "좋은세상만들기 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미래세대에 의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운동

"한국의 대니서 만들기" 기금은 2001년 7월 첫 배분을 실시하여 생명회의의 청소년 환경지킴이 수호천사훈련 프로그램에 300만원, 녹색연합 청소년 환경소모임 아이지엘(I.G.L)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명회의의 수호천사 훈련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야생대리인 활동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음세대 환경운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수호천사 훈련 프로그램중 생태기행 비용과 야생대리인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녹색연합의 청소년 환경 소모임 아이지엘(I.G.L)은 "나는(I) 지구를(G) 사랑합니다(L)"라는 첫글자의 약자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하나뿐인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소모임으로 모든 사업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동아리 활동 중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한 "미래세대의 환경이야기"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새만금 갯벌에는 지금 꽃게, 백합, 갯지렁이, 맛조개 등 많은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물막이 공사가 다 끝나면 자신들이 곤죽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남아 있는 갯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새만금 갯벌 고스란히 물려주세요?

그 이름만큼이나 푸르른 1318세대. 그들은 그 자연을 닮은 감성으로 대규모로 개발, 훼손되고 있는 자연자원이 현 세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래세대도 누리고 이용해야 할 공동의 재산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 ■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 생명과 평화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과 백두대간 보전활동을 전개하는 환경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백두대간 보전 환경단체에 지원은 환경운동 단체 대표자들의 추천을 거쳐 설악생태환경보전 및 설악산 희귀동물 산양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설악녹색연합의 박그림씨, 지리산의 생태?문화?종교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5월 서울 및 지역단체가 통합, 발족한 지리산 생명연대 등 2개 단체가 각 3백만원씩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젊은 세대들의 국토순례를 통해 평화와 연대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 "20대가 바라는 세상"의 "2003 청년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 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8월, 2003년 월
- 지원단체 : 설악녹색연합(박그림), 지리산 생명연대, 20대가 바라는 세상
- 지원내용 : 백두대간 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환경단체 지원, 평화와 연대를 위한

## 청년 국토순례대행진

• 지원금액 : 9백만원

단체명	지역	단체유형	선정 Point	지원금액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강원	지역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악 생태환경운동의 전문가 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환경단체 (정부지원 전혀 없음)</li> <li>• 사진, 슬라이드, 문헌연구 등 국내 최대의 설악생태 자료구비</li> <li>• 설악 산양 등 멸종 위기의 희귀동물 보존 및 연구</li> </ul>	300만원
지리산 생명연대	전북	지역 시민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역의 지리산 보존운동 단체의 통합 발족</li> <li>•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아우르는 풀뿌리 환경생태운동 전개</li> <li>• 지리산의 생태와 문화·종교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생명살림 운동</li> </ul>	300만원



## ■ 박고테기금 노래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노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 음반이 나올 수 있었기에 그 수익금 역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모공주가 나눔천사가 되었습니다. 연예인 박경림님은 2002년 5월 아름다운재단에 1억7천만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이는 "박고테 프로젝트" 앨범 수익금 전액으로, 아름다운재단은 이 기금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소아난치병을 환아를 지원했습니다. 박경림님의 맘과 노력은 치료비가 없어 귀중한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촛불을 다시 밝혀주었습니다. 박경림님의 노래는 노래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1500여명의 아동들이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이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치율이 10~20%에 불과한 성인에 비해, 아동들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약 70%가 완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길고 그 과정이 어려우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아난치병 환아와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고테기금”은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여섯 살 조용건군,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엄청난 비용 때문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던 중국 조선족 이화님의 아들 다섯 살 왕래군 등 12명의 환아들에게, 총 113, 821,767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5월
- 지원대상 : 신경모세포종 임선구 환아 등 소아난치병 환아 12명 지원
- 지원내용 : 백혈병 등 소아난치병 환아의 치료비 1인당 1천만원 내외
- 지원금액 : 총 113, 821,767원

## 7 공익사업일반

### ■ 내일을 위한 기금 특별지원 프로그램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힌다

아름다운재단은 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 2002년과 2003년 홍콩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인권분야 석사과정 한국 참가자를 선발, 총 23,611,280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인권단체 등 공익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이 석사과정 프로그램은 공익단체 및 인권법 분야 전문가, 인권운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대학교의 인권분야 석사과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여러 관점과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춘 최초이자 유일한 정식 학위과정으로, 주로 아시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본국에서 강의와 출판 등 연구분야에서, 그리고 인권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2002년에는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연구활동을 하며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했던 김신씨가, 2003년에는 참여연대 박원석 씨가 선발되어 이 과정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8월, 2003년 9월
- 지원대상 : 김신, 박원석
- 지원내용 : 홍콩대학교 법과대학 인권분야 석사과정 장학금 (학비 및 생활비)
- 지원금액 : 2002년 9,523,910원, 2003년 14,087,370원

### ■ 최달석 목사님을 추모하는 기금 십일조정신으로 만드는 “역사바로세우기”

입시교육 전문사이트 “메가스터디”의 손주은대표, 역사를 가르치는 손대표는 “올바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위안부 관련 법정투쟁을 미국에서 진행중인 “정의회복위원회”에 2002년부터 3년간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십일조의 뜻과 마음이 깃든 이 기금은 신사참배를 거부해 옥고를 치러야 했던 손대표의 외조부인 최달석 목사의 뜻을 기리고자 “최달석 목사님을 추모하는 기금”으로 이름지었습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11월 (1차)
- 지원대상 :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위안부 관련 법정소송을 전개하고 있는 “정의회복위원회”
- 지원내용 : “정의회복위원회”의 소송비용 및 활동사업비
- 지원금액 : 2002년 34,612,489원

### ■ 아시아센터기금 함께가자우리, 나눔의 어깨 걸고

아시아센터기금은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국제연대의 토대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일상화함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의 사고와 폭을 넓히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나눔과 상생의 아시아적 가치를 통한 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의 상호발전 모색과 함께 활동가를 양성하고, 세계화 문제 등에 대한 대안적 운동모형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할 필리핀 아시아센터를 지원합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 현재까지 아시아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총 29,389,851원을 지원했으며, 아시아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1, 2기 연수생 총 13명을 배출하였습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11월~2003년 10월
- **지원대상 및 내용** : 필리핀 아시아센터 설립비 및 운영사업비
- **지원금액** : 총 29,389,851원

## 8 SOS기금 긴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긴급구호

아름다운재단의 SOS 기금은 우리 사회에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단체를 찾아 지원하는 긴급구호기금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이 기금을 통해 우리 시대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해 낼 것입니다. 또한, SOS기금은 우리의 지친 영혼들을 살피고(save our souls), 맑게 만들어 나감으로서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되짚어 볼 것입니다.

### ■ 1차 SOS 겨울나기 기금

2002년 수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지역 수재민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SOS 모금. 2002년 9월12일부터 시작된 긴급 SOS 온라인 모금에서는 모두 32팀(개인 및 단체)이 참여해 총 5,955,08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모금액은 집과 농지를 흔적조차 없이 모두 잃었으나 무허가주택인 탓에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한 강릉시 장작골

의 김00할아버지부부, 가족과 농기계를 모두 잃었지만 지원대상이 안돼 보상을 받지 못한 연곡면의 이00부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12월~2003년 1월
- **지원대상** : 2002년 수해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00, 이00
- **지원내용** : 수해민의 피해복구 및 생계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27,353,017원

### ■ 2차 SOS 두 작은 영혼을 위한 촛불기금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의 열기 속에 즐거웠을 때,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열다섯 우리 어린 꽃잎들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군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 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죽음. 그리고 많은 이들이 촛불 하나 들고 거리로 모였습니다. 미선이 효순이의 억울함 죽음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런 죽음 이 땅에 없길 바라는 기도로, 아름다운재단에서도 촛불 하나 켜는 간절한 염원으로 "두 작은 영혼을 위한 촛불기금"을 온라인 모금했습니다. 이 모금에는 46팀이 참여하여 1,483,000원을 모았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렇게 모아진 "두 작은 영혼을 위한 촛불기금"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알리고 불공정한 한미소파 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여중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범대위는 여중생 장갑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칫 그냥 덮혀버릴 뻔 했던 두 소녀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광화문 촛불시위를 매일밤 주도해오며, 불공정한 한미소파협정의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데 큰 몫을 해온 시민단체 연대모임입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12월
- **지원단체** : 여중생 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 **지원내용** :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활동 지원

• 지원금액 : 총 1,450,499원

### ■ 3차 SOS 떡국나누기 기금

부산의 달동네 해운대구 반송동, 한때 평퍼짐한 소아나무가 우거졌던 이곳 산비탈에 단칸 쪽방. 허름한 살림으로 홀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계보조금 20만원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반송동 달동네의 어르신들, 자식들 다 먹이고 정작 당신은 고픈 배를 찬물 한 사발로 참아내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름다운재단은 2003년 설날 명절 반송동 달동네 어르신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2003년 떡국나누기기금에는 104팀이 참여하여 총 2,96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부산 반송 1, 3동에는 총 187세대의 독거노인 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35세대를 제외한 총 122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각 세대에 10Kg의 쌀을 전해 드렸습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2월
- 지원대상 : 부산 반송동 무의탁 독거노인 122세대
- 지원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쌀 지원
- 지원금액 : 총 2,818,221원

### ■ 4차 SOS 슬픔 그 마음 함께 기금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대구 지하철참사, 지금 비극적인 대구지하철 참사가 겹으로는 마무리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여전히 눈물의 도시이며,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온,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남은 유가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비탄과 피폐해진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SOS 모금

“슬픔, 그 마음 함께” 기금의 1차 지원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SOS 모금에는 총 85,356,142원이 모여졌고 이중 1차 지원으로 생계책임자를 잃은 무의탁노인과 사고후유증으로 장기실직 상태에 처한 가정 등 희생자 유가족 중 생계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유가족 14가족에게 각 3백만원씩, 총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지하철 참사시 시민들을 구하다 희생된 대구지하철공사 통신주임 정연준님의 생전의 선행을 이어가기 위해 고인이 생전에 지원했던 박다운군의 학자금으로 매달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랜드에서 기부한 10억원과 SOS 모금액을 보태 “슬픔, 그 마음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재해구호와 지원 기금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8월
- 지원대상 :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생활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14가정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정연준님이 생전에 지원했던 박다운군
- 지원내용 : 유가족 생계지원금 300만원 및 박다운군 장학금 적립
- 지원금액 : 총 42,000,000원

### ■ 5차 SOS 물 한방울 빛 한줄기 나눔 기금

도심 한복판에서 단전 단수된 집은 가장 원시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불이 켜지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의 단전, 단수는 가난과 궁핍을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 가정 중에 돈 몇 만원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단전, 단수로 절망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SOS기금을 모금했습니다. 물 한방울 빛 한줄기 나눔 SOS 모금에는 1차 일반시민 모금액 8,244,300원, 2차 사랑의 교회 모금액 2억원, 3차 한국전력 모금액 1억5천여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 총 1,450,499원

■ 3차 SOS 떡국나누기 기금

부산의 달동네 해운대구 반송동, 한때 평퍼짐한 소아나무가 우거졌던 이곳 산비탈에 단칸 쪽방. 허름한 살림으로 홀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계보조금 20만원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반송동 달동네의 어르신들, 자식들 다 먹이고 정작 당신은 고픈 배를 찬물 한 사발로 참아내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름다운재단은 2003년 설날 명절 반송동 달동네 어르신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2003년 떡국나누기기금에는 104팀이 참여하여 총 2,96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부산 반송 1, 3동에는 총 187세대의 독거노인 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35세대를 제외한 총 122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각 세대에 10Kg의 쌀을 전해 드렸습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2월
- 지원대상 : 부산 반송동 무의탁 독거노인 122세대
- 지원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쌀 지원
- 지원금액 : 총 2,818,221원

■ 4차 SOS 슬픔 그 마음 함께 기금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대구 지하철참사, 지금 비극적인 대구지하철 참사가 겹으로는 마무리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여전히 눈물의 도시이며,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온,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남은 유가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비탄과 피폐해진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SOS 모금

서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난, 실무자의 소진, 열악한 시설 및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솔교육과 아름다운재단은 공부방 교사와 아동이 함께 만든 지원서를 토대로 매달 한 곳을 선정, “희망특공대”가 직접 공부방을 찾아가 아동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서, 가구, 시설개조, 비품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부방 만들기가 끝난 이후에는 바뀐 공부방에서 희망특공대가 아동들을 위한 작은 잔치도 마련, 아동들이 공부방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부터 2003년 11월 지금까지 총 16개의 아름다운 공부방이 탄생되었습니다.

- 지원시기 : 2002년 5월~2003년 11월
- 지원금액 : 16개의 아름다운 공부방에 총 122,852,544원 지원
- 지원단체 : 서울 구로구 파랑새나눔터, 경기도 안양 빛된 공부방, 서울 종로구 해송어린이복지공동체, 경기도 시흥 샘물 공부방, 인천 어깨동무 신나는 집, 경기도 부천 새날 공부방, 분당 푸른학교, 서울 마포구 나눔 공부방, 인천 해님방, 성남 새날 아동상담교육센터, 대구 날뵈터 공부방, 수원 열린교실, 성남 태평동 푸른학교, 광주 꿈터 공부방, 경기도 오산 다숨신나는 집, 전북 진안 사랑공부방

■ 해태제과의 소원우체통 아름다운꿈이루기

꿈과 희망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실망을 먼저 배워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포레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소중한 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소원은 희망의 근거가 되고, 의욕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소원우체통은 이 아이들에게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자신들과 함께 하는 이들이 있음을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소원을 지닌 아이들, 이들을 위해 함께 꿈꾸는 동안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 지원금액 : 총 1,450,499원

### ■ 3차 SOS 떡국나누기 기금

부산의 달동네 해운대구 반송동, 한때 평퍼짐한 소아나무가 우거졌던 이곳 산비탈에 단칸 쪽방. 허름한 살림으로 홀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서 나오는 생계보조금 20만원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반송동 달동네의 어르신들, 자식들 다 먹고 정작 당신은 고픈 배를 찬물 한 사발로 참아내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름다운재단은 2003년 설날 명절 반송동 달동네 어르신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2003년 떡국나누기기금에는 104팀이 참여하여 총 2,96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부산 반송 1, 3동에는 총 187세대의 독거노인 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35세대를 제외한 총 122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각 세대에 10Kg의 쌀을 전해 드렸습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2월
- 지원대상 : 부산 반송동 무의탁 독거노인 122세대
- 지원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쌀 지원
- 지원금액 : 총 2,818,221원

### ■ 4차 SOS 슬픔 그 마음 함께 기금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대구 지하철참사, 지금 비극적인 대구지하철 참사가 겹으로는 마무리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여전히 눈물의 도시이며,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온,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남은 유가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비탄과 피폐해진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SOS 모금

교보생명 희망장학금은 교보생명이 1억3천2백만원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 조성된 기금으로 보육시설 청소년 25명에게 1년간 2학기분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2월, 8월
- 지원금액 : 1년간의 대학등록금 총 159,928,727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 및 그룹홈 퇴소 대학신입생 25명  
(남 12명, 여 13명 / 4년제 13명, 2년제 12명)

### ■ KTF의 Bigi지기 기금 1318의 미래를 위해

KTF와 아름다운재단은 2003년 7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정보화 교육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1318을 형상화해서 만든 Bigi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KTF의 대표적 브랜드 중 하나로, "Bigi지기 기금"은 정보화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정보화와 자활토대 마련을 위한 기금입니다. 2003년 8월부터 매월 정보화 시설이 열악한 공부방이나 미인가 대안학교, 청소년 자활지원관 중 한 곳을 선정해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컴퓨터, 인터넷 전용선, 스캐너 등 관련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해 국내의 정보화 지역을 탐방 체험하는 정보화 캠프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 대상 공부방 36곳을 비롯, 15개의 미인가 대안학교, 20여개의 청소년 자활지원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의 85%는 컴퓨터 평균 5대, 그나마 386 기종으로, 이중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35%밖에 되지 않는 등 대다수의 단체가 열악한 재정과 낙후된 시설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igi지기 기금"은 정부나 다른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부방, 비·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청소년 자활지원관 중 10명 이상의 청소년 이용시설로서 3대 미만의 컴퓨터를 보유하거나 486이하 컴퓨터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8월~10월 현재

- **지원단체** : 서울 봉천동 대안학교 별, 여수 갈릴리 공부방, 열린 공부방, 서울 응암동 씨앗학교
- **지원내용** :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및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등 정보화 비용, 컴퓨터 방 수리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장판, 도배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총 27,211,610원

### ■ 풀무원의 푸른세상을 여는 기금 생명존중 하늘사랑의 학습장

2003년 11월 7일 서울 중랑구 “열린문 다비다의 집” 옥상에서는 풀무원의 “푸른 세상을 여는 기금”의 지원으로 조성된 “하늘정원” 1호점 완공식이 있었습니다. 풀무원은 기업 이념 중의 하나인 “생명존중” 실천 사업의 하나로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소외된 아동복지시설의 옥상에 채소밭과 습초지, 야생초 군락지와 생태연못 등의 생태정원을 조성해주는 “하늘정원” 지원사업을 연간 3회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하늘정원 조성을 지원받은 이곳 “열린문 다비다의 집” 옥상에는 야생초들로 구성된 풀밭이 생기고 물고기과 수생식물이 자라는 생태연못은 물론 아이들이 직접 씨 뿌리고 가꿀 수 있는 작은 텃밭과 앉아서 쉴 수 있는 마루공간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열린문 다비다의 집”은 가정이 해체되어 갈 곳이 없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피해오는 소녀들, 가출소녀 등이 함께 지내며 생활하고 있는 그룹홈으로 현재 15명의 10대 여학생들이 함께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건평 30여평이 조금 넘는 2층 양옥 집으로 대문과 현관이 계단으로 바로 연결되어 마당이 없을 뿐 아니라 옥상에도 쓸모없는 폐자재와 물통 등이 쌓여 있어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10대 소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하늘정원”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녀들의 상처입은 마음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풀무원 “푸른세상을 여는 기금”은 하늘정원 조성 사업이외에도 소외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나눔과 생태캠프를 각각 3회, 2회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문화나눔으로 지난 10월 남양주 기쁜누리 공부방 아동 13명과 대전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아동 12명 등 총 25명이 롯데월드를 다녀갔고, 광주 광주애육원 아동 10명은 보성늑차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10월~11월
- **지원단체** :  
하늘정원 - 가정폭력 및 해체가정 소녀 및 가출소녀들의 그룹홈 “열린문 다비다의 집”  
문화나눔 - 남양주 기쁜누리공부방, 대전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광주애육원
- **지원내용** :  
하늘정원 - 옥상이나 지투리 땅을 이용해 채소밭, 우리꽃 군락지, 생태연못 등 작은 정원 조성  
문화나눔 - 롯데월드 체험 및 저녁식사, 보성늑차밭 여행
- **지원금액** : 총 27,383,280원 (2003년 11월 30일 현재)

### ■ 태평양제약의 홀로사는 노인들을 위한 기금 케토톱이 효도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섬으로써 우리사회는 실질적인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사회 빈곤노인층은 정부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의 3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사회에는 약 30여만명의 무의탁 독거노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만도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권 노인이 2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71.4%, 10만원 이하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7.9%. 이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80세 이상 최대 월 38만원에 불과합니다.

태평양제약은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케토톱” 수익의 1%로 무의탁독거노인 지원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으로 우선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정부와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

• 지원금액 : 총 1,450,499원

### ■ 3차 SOS 떡국나누기 기금

부산의 달동네 해운대구 반송동, 한때 평퍼짐한 소아나무가 우거졌던 이곳 산비탈에 단칸 쪽방. 허름한 살림으로 홀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계보조금 20만원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반송동 달동네의 어르신들, 자식들 다 먹고 정작 당신은 고픈 배를 친물 한 사발로 참아내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름다운재단은 2003년 설날 명절 반송동 달동네 어르신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2003년 떡국나누기기금에는 104팀이 참여하여 총 2,96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부산 반송 1, 3동에는 총 187세대의 독거노인 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35세대를 제외한 총 122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각 세대에 10Kg의 쌀을 전해 드렸습니다.

- 지원시기 : 2003년 2월
- 지원대상 : 부산 반송동 무의탁 독거노인 122세대
- 지원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쌀 지원
- 지원금액 : 총 2,818,221원

### ■ 4차 SOS 슬픔 그 마음 함께 기금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대구 지하철참사, 지금 비극적인 대구지하철 참사가 겹으로는 마무리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여전히 눈물의 도시이며,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한 줌의 재로 돌아온,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남은 유가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비탄과 피폐해진 생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SOS 모금

- 지원시기 : 2003년 7월
- 지원대상 : 교통사고 유자녀 29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9명)
- 지원내용 : 중학생 분기별 30만원, 고등학생 분기별 50만원을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총 24,200,000원 (2003년 11월 30일 현재)

## 10 문화나눔 긴 여운으로 남는 문화의 향기와 감동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어르신들과 정동극장 ‘전통예술무대’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TV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 너무 좋다고, 이렇게 신명나는 처음이라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까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극장앞에서도 사진찍고, 공연을 해주신 분들과도 사진도 찍고... 우리 할아버니, 할머니들은 오랜만의 외출에 너무 신나하셨습니다. 동네 와서는 외국인들이 구경오는 공연을 봤다며, 자랑에 침이 마르셨습니다. 이번 행사에 초대받으신 분들은 모두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가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셨습니다. 대부분이 독거노인인 이 분들에게 매일 무료한 생활에서 이런 행사에의 초대는 생활의 큰 기쁨과 활력소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부해주신 분들과 재단에 감사의 뜻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기양4 복지관 사회복지사 김성희)

“어제 저녁은 정말 환상적인 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이스쇼, 저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방학이 되어도 집안에서 어느 누구하나 아이들과 함께 문화 생활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되는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구요. 모두 어제 그 경험을” 체험학습보고서“로 만드느라 즐거운 하루가 되었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아름다운 재담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기금부  
기금별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교육  
환경  
의료  
중·일사립연립반  
O.S.O.S.기금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문화나눔

1%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은 각별하고 아름답습니다. 문화를 나누려는 사람들 역시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문화적 차별속에 살아가는 그늘진 이웃에게는 문화향유도 복지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나눔도 다른 어떤 나눔과 마찬가지로 귀한 것입니다. 단 한번도 공연장에 와본 적이 없는 장애인, 방학이라지만 나들이 한 번 제대로 못한 아이들, 야근과 박봉에 제대로 된 공연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세한 공익단체의 근무자들, 이들에게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 등의 관람권을 기부하는 문화나눔은 고단한 삶 속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돈은 잠깐 배고픔을 덜고 가난을 잊게 하는 것이 되지만 문화적 감동과 향기는 그 사람의 일생에서 긴 여운을 남깁니다.

아름다운재단 문화나눔에는 동승아트센터, 국립극장, 신세계 I&C, 빈체로 등 정기적인 문화나눔 참여단체 외에도 수많은 문화단체들이 참여해, 삶의 풍요로움 향기와 감동이 진하게 묻어나는 나눔을 이루어주었습니다.

- **지원시기** : 2000년 9월~2003년 11월 현재
- **지원대상** : 소외계층 및 공익단체 실무자들
- **지원내용** : 연극, 영화, 콘서트, 전시회 등의 문화공연

### 문화나눔의 참여단체와 티켓들

동승아트센터, 국립극장, 빈체로, 신세계I&C, 자우림, 여행스케치, 들국화, 크라이넷, 합창단 음악이 있는 마을, 타이페이필하모닉 챔버콰이어, 2002 서울월드뮤직페스티벌, TV동화 행복한세상만들기, 모스크바이스쇼, 연극우라을내, 첼리스트 안니빌스마, 연극 타이타스앤드러니커스, 연극 아트ART, 빈체로 리얼그룹공연, 연극 당나귀들, 어린이창극 효녀심청, 어린이극장 이상한스프, 정동극장 전통예술투대, 도심으로 떠나는 문화나들이, MTV 문화나눔이벤트, 어린이미술전시회 동화속미술여행, 어린이영어연극 리틀드래곤, 록뮤지컬 지하철1호선, 뮤지컬연극 홀스토펜트, 연극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연극 휴먼코메디, 매직오페라 헨젤과그레텔, 가족뮤지컬 체브라시카, 미술사정성모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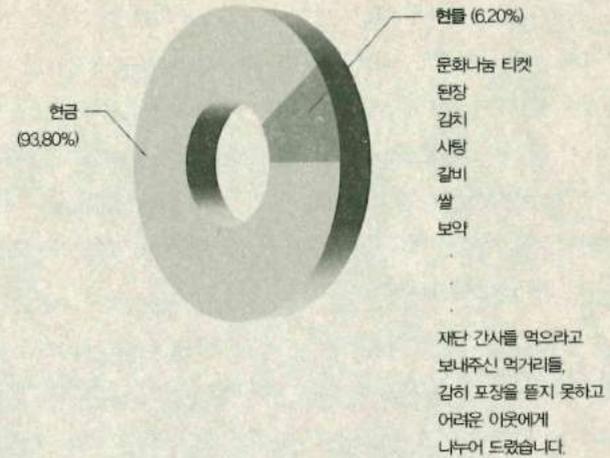
### 문화나눔의 혜택을 함께 누린 사람들

장애우권이문제연구소, 민가협, 정대협,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충현복지재단, 송가원, 가톨릭사회복지회, 진천청소년자활지원관, 대한성공회살림터, 성분도복지관, 아이세상방과후학교, 서울자유의집, 늘푸름나무복지관, 희망민들거 열린학교, 나눔지역복지선교센터, 두리하나공부방, 마가렛의집, 새움공부방,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 인천 장애인부모회그룸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노인복지관, 풀꽃세상, 환경정의시민연대, 한나복지재단,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가브리엘작업활동시설, 천재재활원, 약수노인복지관, 방이골종합사회복지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동아학, 면목아학, 태청아학, 성동복지관 희망을찾는이웃사이더친구들, 구로외국인노동자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안양이주노동자의집, 한국시각장애우협회, 애란세움터, 안산통합길목, 서울장애인복지관, 기양 1,2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서울베다니학교, 씨튼해바라기의 집,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믿음복지회,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금천자활후견기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1%희망클럽, 군포기아종합복지관, 푸른시민연대, 해송어린이동지공동체, 안산시군자사회복지관, 중앙구구청가정복지과, 근로복지센터 "we can", 변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새날공부방, 정립보소작업시설, 손과손 예림원, 믿음복지회, 강동공동생활가정, 군자사회복지관 방과후아동 공부방, 동천의집, 밀알복지재단 그룹홈섬김의집,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다니엘복지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장장애인부모회, 동대문해맑은공부방, 장애인공동체, 시온찬양의집, 파랑새어린이공부방,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천사의집, 구립면목1동어린이집, 해성보육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해님뜨래공부방,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기양4종합사회복지관, 라파엘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현양원, 동방아동, 재활원,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 한사랑마을,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송덕재활원, 사회복지법인인성림원, 광주광역시동구정신보건센터, 한국SOS어린이마을, 들꽃청소년세상, 서울시그룹홈센터, 기양1호그룸홈, 한라사회복지시설, 주몽재활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씨튼해바라기의집, 부산근육장애인재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면목사회복지관, 서울환경연합여성위원회, 장애인공동체 시온찬양의 집,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꿈터공부방,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안성종합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현양원, 동방아동 재활원,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 한사랑마을, 상록보육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 동명노인복지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동천의집, 우리자리공부방청소년, 하나로군포시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 강서자활후견기관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나자렛심자리청소년, 믿음복지회,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장애인부모회, 동촌7종합사회복지관, 충현복지관그림홈, 서대문자활후견기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다시함께심터청소년, 서울시 공부방연합회, 하상장애인, 강화정신요양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헤림직업재활원, 기쁜우리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송파열린방과후교실, 서울시립소년의집, 다니엘복지원, 여주천사들의집, 요한의집, 신망재활원, 동천의집, 우성원, 가평꽃동네장애인요양원, 우주, 해치림밥은곳, 평화재활원, 신아재활원, 가없이좋은곳, 혜명양로원, 강서장애인부모모임, 청암노인요양원, 청운양로원, 산내노인요양원, 영락요양원,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www.beautifulfund.org

■ 또 하나의 통계. 그리고...



기부자님의 정이 담긴 현물 자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 그냥 한번?

오래오래 계속! 1년 365일 쉬지 않고 내내...

### Q 아름다운재단은 어디에 배분하나요?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의 소외계층, 그리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이나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빈곤 등의 특정 문제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공익영역과 사업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금들은 각기 지원하는 공익영역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금별로 정해진 사업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금의 지원영역과 내용은 기부하신 분들과 아름다운재단이 협의하여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 Q 그럼 배분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은 기금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의 시기도 각 기금별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기금별로 기금이 조성되고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기부금은 보전하고 기금을 최대한 계속 불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각 기금별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1년 365일 내내 쉬지 않고 기금 배분을 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계속 기금을 키워나가는 일도 쉬지 않구요. 1년에 한 두 번 정해진 시기에 배분하는 다른 재단이나 모금단체와 조금 다르지요? 바쁘디 바쁜 아름다운재단 각 기금별 배분사업 일정은 웹사이트 배분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배분사업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각 기금별로 보면 지원금액이 좀 작지만, 그러나 기금 지원사업 금액을 다 합하면 그리 작

지도 않습니다. 각 기금별로 모금한 금액에 비해 지원사업 금액이 작은 것은 아름다운재단이 추구하는 원칙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바라는 것은 "한 번의 큰비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단 한 번의 지원으로 기금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키워나가면서 매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키운다는 것은 내일, 다음세대를 예비하는 마음인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살아 생전에는 만나지도 못할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을 영구히 보존하자는 것이지요., 아름다운재단 기금들은 아름다운재단이 존재하는 한, 함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 Q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우선 기금배분사업 내용을 웹사이트를 비롯하여 여러 매체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금 지원금액의 규모와 내용, 성격에 따라 공개적인 신청(공모)을 받거나,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무국에서 리서치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자문과 현장 실사작업을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직접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다양한 심사방법(서류, 인터뷰, 현장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최종 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입니다. 아름다운재단 배분위원회는 사회복지학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교육계 등 각 분야에서 신망받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한 심사에 열의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 Q 기부할 때 기부단체이나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기부하시는 분이 기부대상을 추천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신 대상이 아름다운재단과 해당 기금의 목적에 잘 부합되고, 또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과 단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 열심히 찾아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단체,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재단의 역할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어, 소중한 돈이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을 한번 믿어 보세요. 돈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 ●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 들꽃, 오지에서 더 아름답다!!

거리를 방황하던 한 무리의 가출청소년들이 안산의 한 작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 잠을 자곤 했습니다. 돌아갈 가정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자신의 집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들꽃피는 마을은 시작되었습니다. 들꽃피는 마을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교부적응 등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생활하는 대안가정(그룹홈) 시설로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공동체 “들꽃피는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꽃피는 마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역사탐방, 국토횡단여행, 도자기 창작캠프, 지리산 등반 등의 교육훈련 캠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으로 실시된 오지탐험 프로그램은 2001년 8월6일부터 9박10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여행에 함께 한 들꽃피는 마을 입소청소년 41명은 강원도 현천에서 속초까지 약 160Km의 거리를 도보로만 이동하며 강원도 산악오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이 오지탐험은 어린 시절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신뢰와 배려에 익숙하지 못한 들꽃피는 마을 청소년들이, 함께 여행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협동심을 키우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9박10일간의 거친 여행을 통해 들꽃피는 마을의 청소년들은 우정과 팀워크의 중요성, 목표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배울 수 있었고, 목표를 이루고 난 뒤의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 ●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의 청소년 글로벌 프로젝트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잡은 대구시 달서구 월성 2동은 달서구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등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이들에게는 가정환경에서부터 사회적 낙인이 형성되는 영구임대아파트 생활환경으로 인해 무기력함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사회사업가는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정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나눔 실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2003년 8월 16일, 10명의 청소년들은 드디어 6박 8일간의 길을 떠났습니다. 매콩강 수 상가옥 주민들과 아이들을 방문하고, 에이즈 말기 환자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에이즈 호스피스센터, 철거민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회에서 에이즈 아동과 에이즈 부모로 고아가 된 아이들, 결핵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간인 짬짜오에서 아이들과 함께 풍선을 만들고 비누방울을 불어 주며 점심을 먹이며 작은 나눔이 전하는 보람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뢰 피해자들과 장애인들이 다니는 기술학교인 반티 프리업에서는 그 곳 장애인들에게서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배우며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6박 8일,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고, 언어 소통상의 문제로 자원봉사활동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참여자들이 보여준 적극성, 저개발국가에서 역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었던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앞날에 이번 여행의 경험이 작지만 소중한 경험으로, 그래서 잠시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작은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우리은행 백두대간 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영역

### 동천의 집의 “사랑의 그루터기”

동천의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주는 한편,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생활능력향상 훈련, 사회재활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천의 집의 “사랑의 그루터기” 사업은 결혼으로 생활시설을 퇴소한 무연고 여성 정신지체장애인들과 그 가정의 안정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결혼한 무연고 여성 정신지체장애인들과 그 가정에 친정의 역할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여성 정신지체장애인들과 가정에 심리적 지지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부관계, 자녀출산 및 양육, 부부관계 및 시댁과의 갈등, 경제문제 등 일반적인 갈등요인 이외에도 장애로 인해 정상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대부분 저소득 빈곤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장애

인 생활시설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막상 결혼과 취업 등으로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는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혼과 함께 사회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방치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무연고 여성정신지체장애인. 이 사업은 저소득 여성지체장애인 가정에 전화를 설치하고,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친정 나들이(퇴소시설 홈커밍데이), 지역사회 가정과 후견인 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문제와 갈등, 정서적 소외감을 미리 예방하여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해태제과의 소원우체통

### 세 쌍둥이 가족의 제주도 여행

천진난만한 초등학교 4학년의 세 쌍둥이들의 따뜻한 소원이야기를 들어보세요. IMF 부도 후 심근 경색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생계를 위해 매일 어린이집 보조일로 힘겨우신 어머니, 대신 아이들을 돌보시는 외할머니.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 어린 마음이 찢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세 쌍둥이는 언제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걱정합니다. 어머니는 왜 감기가 떨어지지 않으실까, 외할머니는 셋이나 되는 우리 때문에 혹여 더 힘들지 않으실까.. 그래서 아이들의 소원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단 며칠이라도 자연속에서 쉬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깊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어느새 철이 들어버린 세

쌍둥이의 어른스러움이 어른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다섯식구는 제주도에서 2박3일간의 추억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테마파크와 식물원, TV에서만 보던 돌고래쇼, 제주 월드컵 경기장과 영화박물관, 모든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폭포와 동굴, 제주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어머니와 할머니도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해 봅니다. “여기도 아빠랑 왔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은 묻습니다. 어머니는 옛추억과 더불어 지금 이 소중한 시간들을 또 하나의 추억으로 접어봅니다. 다섯 식구들에게 이제 하루방도 정겨워 보입니다.

마지막날, 서울행이 못내 아쉽기만 했지만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돌아가서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열심히 돕는 더욱 착한 우리가 되겠다고, 세 쌍둥이 중 민이는 아름다운재단에 한 통의 편지를 부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이 되어 어려운 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보답해 드릴게요.” 아이의 착한 미래를 기대해 볼까요?

## ○ 현대모비스 기금

### “이제는 부모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현대모비스 기금을 지원받은 최00군(고등학교 1학년), 인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최00군은 초등학교 교사인 부모님과 4살 위인 누나와 행복했던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끝났습니다. 강원도의 외삼촌댁에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로 부모님과 누나가 모두 사망

하였고, 최군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79세의 할머니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최군이 학교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 건 어머니처럼 돌봐주시는 할머니덕분입니다.

최군은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해 중학교때 워드프로세서 1,2,3급 자격증,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중학시절의 꿈을 접고 이제는 부모님의 직업이었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며 틈틈이 동아리인 “풍물패” 활동에도 열심히 합니다.

최군을 만난 날, 최군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젓한 모습에 놀라움과 뿌듯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책을 읽으며 더 넓은 세상을 보기위해 노력하는 최군의 자세, 세상을 향한 자신감과 차분함. 최군이 보다 넓은 사회로 날아 오를 수 있도록 현대모비스기금이 지원합니다.

※ 아름다운재단 배분사업의 다른 사례와 사연들은 아름다운재단 웹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 세상에 나눌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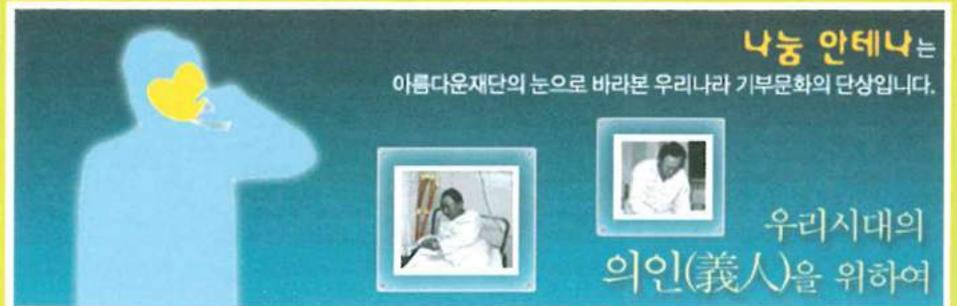
신체의 절반밖에 쓰지 못하는 장애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없이 단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지만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을 기꺼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근근히 삶을 이어가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저우 한 두사람만이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하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종일 구두를 닦으며 번 돈으로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으로  
1%를 보내주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간판도 지붕도 없이 행상을 하는 노점상 아내와 목수 남편의 나눔의 가게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인세 1%가 있는가 하면  
성공한 CEO의 연봉 1%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소박한 나눔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덟 번째 습관을 떠올리게 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의 작은 하나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의 나눔에 붙여진 이름, 바로 **아름다운 1%**입니다.



나눔 안테나는  
아름다운재단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단상입니다.

우리시대의  
의인(義人)을 위하여

한 시간 동안 행복하고 싶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낚시를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결혼을 하라  
일 년 동안 행복해지고 싶다면 재산을 물려받으라  
평생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군가를 도와주라

중국 격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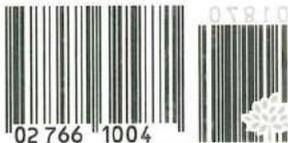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의 '의인기금'에 익명으로 5천만 원을 기탁해 주신 기부자께서 최근 언론  
에 보도된 봉사하다 중상 당한 '서러운 의인'을 위하여 또다시 300만원을 재단을 통해  
기부해주셨습니다. 서러운 의인은 다름 아닌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  
를 하다 크게 다친 신용섭(44·충북 청주·사진)씨입니다.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서 쫓겨  
날 처지에 처한 한 의인에게 이 돈은 너무 값지게 쓰일 것입니다. 의인을 알아주는 사  
회, 의인이 대접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런 귀감을 알려내는 것  
이야말로 어떤 교과목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러운 의인'에게 희망을 주는 익명의 기부자 또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의인 입에는 틀림  
없습니다.



### 나눔가계부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절약가계부의 잔잔한 삶의 자취처럼  
꼭 필요한 곳에 쓰였나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쓰임새를 되짚어 보는  
“기부자의 가계부”입니다.



The Beautiful Foundation